



인천항 제2연육교 후속대책팀 구성운영

해양수산부, 인천시, 유관단체 등 참여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제2연육교 주경간폭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 유관단체를 포함한 후속대책팀을 구성해 인천항 운영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제2연육교의 주경간폭은 그간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해 오다가 지난해 12월17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800m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수립된 인천항 제2연육교 주경간폭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은 제2연육교 건설기간은 물론이고 교량 완공 이후에도 인천항을 이용하

는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정비, 안전, 운영, 인천항 기능유지 종합대책 등이 분야별로 추진된다.

해양부는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해 인천항의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천청 관계자와 인천시,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유관단체를 포함한 '제2연육교 후속대책팀(팀장 : 항만운영과장)'을 구성해 제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매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올해 연말 이전에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수행키로 했다.

정부, 인천항만공사(IPA) 조직규모 확정

3본부 · 1처 · 13팀에 직원 123명 수준

정부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인천항만공사의 조직 규모를 3본부 · 1처 · 13팀으로 정하고 123명의 직원을 채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인천시청에서 제5차 인천항만공사 설립위원회를 열고 인천항만공사의 조직구성과 인력충원계획을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인천항만공사의 조직규모는 출범 초기 가능한 한 소수정예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3본부(경영기획 · 항만운영 · 항만건설) · 1처(갑문운영) · 13팀의 직제로 구성키로 했다. 직원은 임원을 포함해 총 123명(갑문위탁인원 48명 포함)을 채용

키로 했다.

공사 직원의 채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전 직원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키로 했다. 2월 중순부터 선발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청의 기능이 항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사출범 후 항만관리운영의 연속성 유지와 항만이 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청과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수인력(갑문위탁인원 포함 87명)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인원은 오는 5월부터 항만공사 인수로 편성돼 공사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된다.